

## 57 선재 가공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말초신경병증

성별	남성	나이	55세	직종	선재 가공직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### 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88년 12월부터 □산업에 입사하였고 1995년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다가 1997년 1월에 재입사하였다. 선재제품 처리과정 중 산처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였다. 2012년 6월,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주변사람의 지적을 받았으며, 이후 서서히 걸음이 불편해짐을 느꼈고, 2012년 12월 하지의 힘이 떨어지고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□의료원 경유 후 같은 해에 □병원 방문하였고, 2013년 1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.

### 2 작업환경

○○○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,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□산업에서 선재 가공 작업을 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산처리 공정이었다. 산처리 공정은 크게 석회 및 염산처리와 코팅 두 가지 작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, 근로자 ○○○은 코팅 작업을 주로 하였고, 작업은 석회 및 염산처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코팅이 이루어졌다. □산업에서는 이들 모든 작업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작업장 구분이 큰 의미가 없었다. 작업시간은 08:00부터 17:00이었으며, 일반적으로 현장 근무자들은 18:00까지 근무하였고, 잔업시에는 22:00까지 근무하였으며, 통상 주 2회정도 잔업이 있었다. 교대 근무는 없었고, 가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.

현장에서 작업자들은 면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, 근로자 ○○○도 간헐적으로 마스크 착용 후 작업하였다고 했다.

### 3 해부학적 분류

- 신경계 질환

#### 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(산화 아연, 염화수소, 인산)

#### 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12년 8월경부터 보행장애가 발생하였고 2012년 12월경 □의료원, □병원에서 두부 MRI, 근전도검사, 신경학적 검사 등을 받고, 2013년 1월경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.

#### 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1988년 □산업에 입사하여 1995년에 퇴직 후 1997년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6년간 산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는 산처리 업무 중 산화아연, 염화수소, 인산에 노출되었고 노출수준은 5% 미만이었으며, 다발성 말초신경병증과 관련해 알려진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 끝.